

# 광주 AI, 국가 지식재산 정책 적극 반영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  
광주 AI창업캠프 방문  
집적단지 조성사업 등 청취  
균형발전 연계지원 약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광주 동구 AI 창업캠프에서 AI 지식재산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AI(인공지능) 기업 창업 요람'인 광주 AI 창업캠프를 처음으로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지식재산(IP) 정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28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과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광주 AI 창업캠프를 찾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AI 창업캠프 입주 기업을 둘러본 뒤 시제품 체험 및 AI 기업을 대상으로 권의사항을 청취했다.

지재위는 이날 '지식재산(IP) 기반 지역경제 혁신' 정책발굴을 위해 광주를 첫 방문했으며, 광주 지역 주력산업인 인공지능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광주지역 내 지식재산(IP)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IP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을 이끈 문정진 지식재산진흥관은 "광주 AI창업캠프 현장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화해 나감으로써 AI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AI창업캠프는 AI창업 기업 공간으로 1호관은 인공지능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집적화하는 스타트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2호관은 성장 진입 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업 프로

젝트가 이뤄지는 AI 기업 역량 확장 공간이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주 첨단3지구(4만7246㎡)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19억원을 투입해 AI 융합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각종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청년·농가·상생...지구농마을 한가위 특별전

9월 2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농산물 28종 최대 33% 할인

광주시가 지역 청년 농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추석 맞이 특별 할인 판매전을 연다.

광주시는 "9월 2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지구농마을 장터 한가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으로 실시하는 지구농(지구를 구하는 농부)마을 장터는 농촌과 도시,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새로운 직거래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선 주문을 통해 중간 유통업자 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 농부 및 사회적 경

제 기업이 참여한다. 배춧, 두부, 콩나물, 유정란 등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28종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시청,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부착된 포스터 내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선주문은 30일까지며 주문한 물품은 행사 당일인 9월 2일 행사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사전 주문을 놓친 소비자는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김세훈 광주시 광역협력담당관은 "이번 행사로 실시하는 지구농(지구를 구하는 농부)마을 장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농가·상생을 키워드로 진행된다"며 "광주 시민과 더불어 이전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대중컨벤션센터·여수·전북마이스협회 호남권 MICE 산업생태계 강화 손 잡았다

공동 마케팅 등 3개 분야 업무협약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사)여수마이스협회, (사)전북MICE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호남권 MICE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MICE 관련 정보 공유, 대형 정책 전시회 유치 공동 마케팅, 전시회 및 대형행사 공동 개발 등 3개 분야에 걸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산하연을 포함하는 호남권 네트워크 확대, 차별화된 호남권의 특화된 MICE 행사 발굴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목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호남권 MICE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협약이 실질



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기 업무협의를 지속 개최하고, 공동 사업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자 발굴 사업설명회

광주트라우마센터 내달 27일까지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김명관)는 "다음 달 27일까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50명의 치유대상자를 발굴했다.

이번 하반기 사업설명회에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합평사건유족회와 여순사건 보성유족회 총 460명이다. 설명회는 유족회 소재지와 광주 등지에서 개최된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설명회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안내하고 트라우마 심리교육, 회원 등록, 홍보영상 상영, 기념 공연 등을 한다. 지난 24일에는 합평사건보성유족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식중독 안심, 아직 일러요

고온다습 9월에도 발생 가능성  
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의 당부  
45곳 김밥 검사 1건 부적합 판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배달전문점 합동 위생점검을 통해 수거한 김밥과 '식중독군 추적관리사업'에 따라 자체 수거한 총 45개소의 즉석 조리·판매업소 김밥을 대상으로 주요 식중독원인균(살모넬라 등 8종)을 검사한 결과, 44건 적합, 1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1건은 식중독원인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g당 10,000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토양 상재균으로 토양과 관련한 식품 원재료 및 가공 조리 식품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열에 강한 독소를 생산하고,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위해성 식중독원인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2021년 7·8월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살모넬라나 병원성대장균에 비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적다. 하지만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년 다양한 원인균에 따른 식중독이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언이다.

특히 식재료와 음식을 실온에 둘 경우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또 식재료를 취급한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조리 중 착용했던 장갑은 수시로 교체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실천 및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 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앞으로도 시기별·사안별 오염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식중독원인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식중독 예방에 집중하겠다"면서 "음식 냉장 보관,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모

광주시 9월1일~16일 접수

광주시에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 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이며, 본인 신청과 기관 추천 모두 가능하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근거한 이상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5명의 기업인이 받았으며, 올해에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 평가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 사회 공헌도 등 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1% 추가 보전, 구조조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추천을 원하는 기관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